



점차 우리식탁을 장악하는 수입닭고기

닭고기수입량, 국내 생산량 30% 향해 고속 질주 중 생산자와 계열사 컨트론타워 설치 수입육 막아야

2011년 초부터 초·중·고등학교와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 상권 등에 닭강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양념치킨이 등장해 빠른 속도로 점포망이 확산됐다. 수입산 닭다리 냉동육을 사용하는 닭강정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소량 포장형태, 빠른 테이크아웃 등의 사회적 흐름을 타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겼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작년 4월 축산물수입동향에 따르면 작년 1~4월 닭다리 냉동육이 총 3만4412톤 수입됐고 4월 한 달 간 9,722톤이 수입, 전년 동월대비 85.7%가 증가됐다. 특히 브라질산 닭다리 냉동육은 3,935톤 수입돼 전년동월 대비 624.5%가 증가해 닭강정의 인기를 나타냈다.

문제는 수입닭고기가 국내 육계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수입닭고기는 국내 소비시장의 30%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만2805톤, 2011년에는 11만8707톤, 2012년에는 총 12만7264톤의 닭고기가 수입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전체 공급량의 75%정도 국내에서 수급하고 25% 정도를 수입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다가 FMD 이



김수용 기자
농축유통신문

후 이 틀이 완전히 깨졌다. 2011년 FMD 발생 이후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 항공료 지원 등을 지원하며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국민들의 식탁은 수입돼지고기로 잠식당했고 더불어 우리나라 양돈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닭고기도 이미 냉동닭고기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외국산 닭고기 2~3차 가공제품이 동네마트 등에 널려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는 태국산 닭고기생산업체인 CP사의 닭고기 가공제품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값싼 가공닭고기로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동원F&B, 오투기 등 국내 굴지의 가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수입닭고기를 수입해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고 있어 이제는 수입닭고기가 어디에서 수입될지 전망조차 힘들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 1월 전망에는 수입 닭고기가 약 7,500톤 정도 수입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1월 실질 수입량은 1만2600톤이었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이행으로 냉동닭고기 현행관세율(2013년 기준, 미국 : 16%, EU : 14%)이 10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2년에는 무관세가 되며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육계산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매년 3~4%씩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닭고기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계열사와 농가 등은 닭고기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해 국산 닭고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육협회와 양계협회, 토종닭협회는 작년 7월부터 대기업 급식업체 및 가공업체를 수차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 사용을 적극 협조 요청했으며 수입닭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집회 및 불매 운동 등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들만의 노력으로 수입육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계육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 조직과 정부, 국내 육계계열사 등이 함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국산 닭고기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식품의 수입이 일반화된 일본의 경우처럼 대형 식품 가공업체들(니혼햄 등)이 직접 수입유통에 참여해 외국산 제품을 국내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등을 통해 수입식품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수입유통구조를 찾아야 무분별한 수입닭고기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